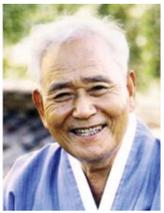


# 故 흥남순 변호사 화순 생가 복원 착수

내일 도곡면 생가터서 기공식  
건물 2동 건축, 마당·담장 정비  
광주 자택 5·18사적지 지정 이어  
기념사업회 민주 교육장 활용



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공식은 흥남순 변호사의 유가족, 흥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회원 등이 참석해 흥남순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화순군은 오는 10월까지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투입해 복조 초가 형태의 생가를 최대한 원형대로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안채와 문간채 등 84㎡ 규모의 건물 2동을 건축하고, 마당, 담장 등도 정비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흥 변호사의 공동 가옥 매입·보존 비용 5억5000만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등 공동 가옥(동구 공동 15-1번지) 정비 사업에 착수했다. 이곳은

5·18 당시 재야 민주인사들이 모여 토론과 회의를 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하며 '민주 사랑방'으로 불렸던 곳이다. 그동안 광주시 등이 이곳을 보존하려 했지만 가옥이 너무 낡고, 모 종합사회복지관 소유여서 구체적인 복원·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12월 출범한 흥남순 기념사업회는 화순 생가, 공동 가옥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12년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에서 태어난 흥 변호사는 1948년 10월 제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1953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평생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다. 광주고법, 대전지법을 거쳐 1963년 광주 공동 가옥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으며, 당시 양심수 변론을 맡아 '긴급조치 전

문변호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5·18 때는 수습위원으로 나서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간 복역한 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5·18 광주구속자협회 회장, 5·18 광주민주혁명기념사업 및 위령탑 건립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5·18 진상규명과 시민 명예회복 활동에 전력했다. 후배 변호사들은 흥 변호사를 기리기 위해 지난해 7월 광주변호사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광주변호사회 회관에 흉상을 설치하기도 했다. 구중권 화순군수는 "많은 분의 존경을 받는 흥남순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생가 복원사업이 민주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kimyh@kwangju.co.kr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호남예술제 꿈나무 64명의 관악합주 28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4회 호남예술제에서 광양제철초 박서하 등 64명이 관악합주 경연을 펼치고 있다. ▶입상자 명단 17면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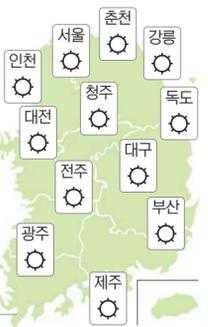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1 달뜨기 02:28  
해질 19:39 달질 14:28

### 하늘 자외선 조심

맑고 낮과 밤 일교차 크겠다.

광주	맑음	13/28	보성	맑음	9/28
목포	맑음	15/25	순천	맑음	14/30
여수	맑음	16/27	영광	맑음	12/26
나주	맑음	10/28	진도	맑음	11/25
완도	맑음	15/28	전주	맑음	13/27
구례	맑음	9/30	군산	맑음	13/25
강진	맑음	10/27	남원	맑음	10/28
해남	맑음	9/26	흑산도	맑음	16/24
장성	맑음	10/27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	남서~서	0.5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	서~북서	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서~북서	1.0~1.5	서~북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서~북서	1.0~2.0	서~북서	1.0~1.5

### ◇생활지수

- 관심
- 식중독
- 매우 높음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3:23	09:57
16:11	22:45	
여수	11:52	05:32
23:57	18:03	

### ◇주간 날씨

30(목)	31(금)	1(토)	2(일)	3(월)	4(화)	5(수)
☀	☀	☀	☀	☀	☀	☀
15/28	15/26	15/28	16/29	17/30	18/31	18/30

## 국내 최초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집담회 개최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 30일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은 30일 오후 3시30분 대학 법과대학 1층 산학관 협의실에서 국내 최초로 지자체 단위의 '민주화운동기념·정신계승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시민집담회를 개최한다.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관련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2019년 5월 현재 총 35건인데 광주시는 그 중 9건(25%)이고, 호남지역은 18건(51%)이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이번 제1차 집담회는 광주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정의, 기본방향, 미래상을 광주시민과 토론하고, 현재 광주시 발주 사업인 '광주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연구팀은 책임연구원 지방근 교수, 공동연구원 이근근 연구교수, 최선 교수와 연구보조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총 4차례의 집담회를 거쳐 최종 보고서는 올 9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 불 나면 대피부터...광주남부소방 '피난 우선' 캠페인

광주남부소방은 '불이 났을 때 무리한 화재 진압을 시도하기보다 피난이 우선'이라는 '피난 우선'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늦어져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화재 진압보다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윤희 기자 kimyh@kwangju.co.kr

남부소방은 소방훈련과 안전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원용 남부소방서장은 "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은 인명 대피"라며 "생활하는 장소에서 불이 난다면 어떤 대피로를 통해 피난할 것인지 대응방법을 꼭 숙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중국인들, 수영대회 보러 광주 찾을 것"

중유학생 60% 긍정 전망  
73% '개최지 광주' 인지

광주에서 유학생인 중국인 학생 10명 중 6명은 중국인들이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관람하러 올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광주시 차이나 센터가 호남대 관광경영학과에 의뢰해 광주지역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 4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유학생 72.9%(296명)는 세계 수영대회 개최지가 광주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중국 관광객이 수영대회를 방문할 것인지 묻자 59.8%(243명)가 '그렇

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쑨양 등 세계적인 선수의 영향으로 중국인들의 수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학생들은 답변했다. 유학생 77.6%(315명)는 수영대회를 통해 중국에서 광주 도시 브랜드가 알려질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54.4%(221명)는 중국에 있는 친구·친지 등에게 수영대회 관람을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중국 관광객 유치에 위한 과제는 중국어 관광 안내 서비스(49.5%), 숙박시설(17.7%), 깨끗한 도시환경(14.8%), 교통(9.9%), 음식(8.1%) 등 순서로 답변 비율이 높았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예고 전공교과 사설학원 강사 채용 논란

시민모임 "공교육 정상화 역행"

광주예술고등학교 전공교과 강사에 현직 사설학원 강사가 채용돼 수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인력풀 확보와 전문교과 강사 선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예술고에서 제출받은 '2018~2019년 전공교과강사별 상세 이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공교과강사 129명 중 사설학원 강사는 미술 11명, 무용 2명, 음악 2명 등 총 15명(11.63%)이었다. 또 올해는 126명 중 사설학원 강사가 미술 11명, 무용 2명 등 13명(10.31%)이었다. 지난 2년간 255명 중 28명(10.9%)이 사설학원 강사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시민모임은 "전공교과 강사가 학생들의 실기를 관리해 명문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공교육기관이 체계적인 대학입시 관리를 위해 사설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사설학원 강사가 방과 후 교육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사설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포트폴리오(안무·작곡 등) 등 상품 판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시민모임의 우려다. 시민모임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 '전공교과강사 채용 시 합리적인 수준의 인력풀을 확보해 전문교과강사를 선정할 것'을, 광주예술고에는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자원을 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